

ISSN: 2800-051X

Hankook **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361-1호)

여론속의 여輿론論

2025년 결산: 2025년 한 해 평가

2025. 12. 24.

담당자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돋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저작권 정책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1 2025년 본인 한 해 평가

2025년 나 자신에 대한 만족도 평가, 10점 만점에 5.5점으로 작년과 동일 고소득, 주관적 경제인식 중상층, 정규직 임금근로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아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며, 본인 스스로에게 몇 점을 줄 수 있는지 물었다. 0~10점으로 만족도를 물었고, 10점에 가까울수록 만족한다는 의미이다. 올 한 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6~10점)'는 응답이 전체의 48%, '전반적으로 불만족(0~4점)'가 26%, '보통(5점)'이 26%로, 올 한 해 스스로에게 만족한다는 사람이 불만족한다는 사람보다 많다. 만족도 점수 평균은 10점 만점에 5.5점이다.

2024년 본인 스스로에 대한 평가는 평균 5.5점이었는데, 올해도 이와 동일한 수준이다. 연말 스스로에 대한 평가는 2021년 5.3점, 2022년 5.5점, 2023년 5.2점, 2024년 5.5점, 2025년 5.5점으로, 매년 5점대 초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세대, 성별, 경제적 계층 등과 관계없이 2025년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가 2024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소득수준과 경제적 계층인식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은 올해에도 변함없이 확인된다. 가구소득이 월 300만원 미만인 사람의 만족도는 5.0점으로 보통 수준인 반면, 600만원 이상인 사람의 만족도는 6.2점으로 높은 편이다. 또한 스스로를 중상층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의 만족도(6.3점)가 하층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의 만족도(5.0점)보다 1.3점 높다.

직업별로는 정규직 임금근로자가 스스로 평가한 올 한해 만족도가 5.9점으로 가장 높고, 자영업자(5.5점), 비경제활동(5.3점), 비정규직 임금근로자(5.1점) 순이다.

2025년 나 자신에 대한 만족도 평가, 10점 만점에 5.5점으로 작년과 동일 연말 스스로에 대한 평가는 매년 5점대 초반 수준을 유지

2025년 조사결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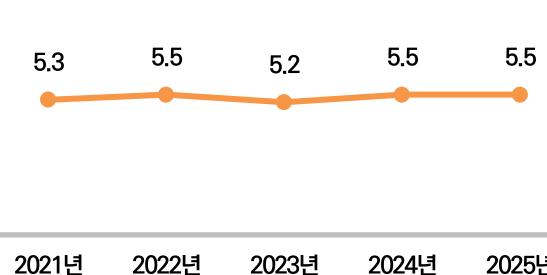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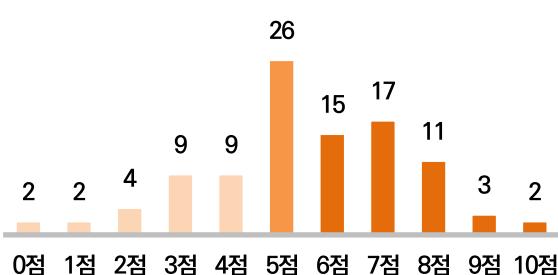
나 자신에 대한 만족도 평가 점수 추이

(단위 : 점)

불만족: 26%

평균: 5.5점

만족: 48%



질문: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스스로에게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매우 불만족스러운 한 해였다면 0점, 매우 만족스러운 한 해였다면 10점, 보통이라면 5점으로 답해 주세요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12. 19. ~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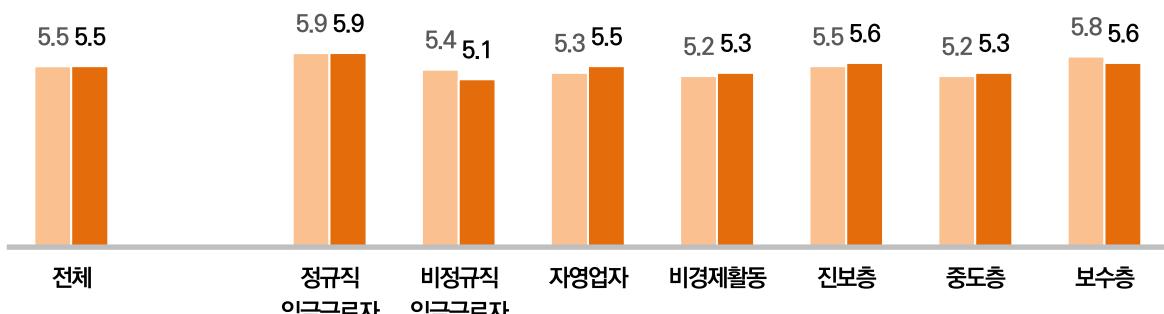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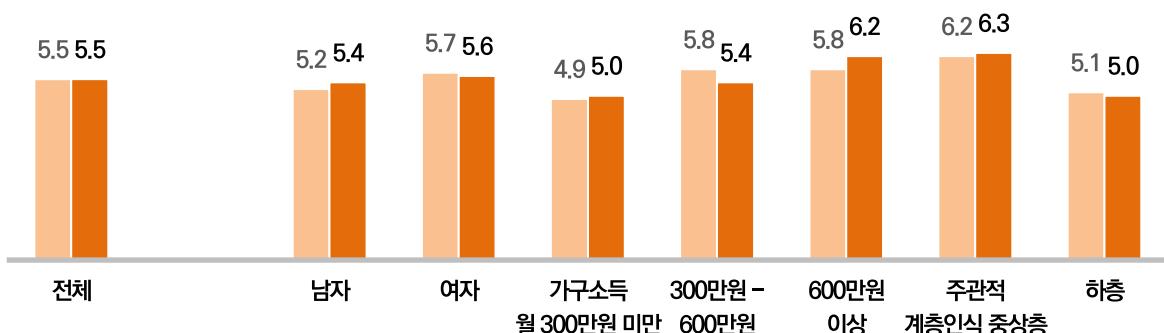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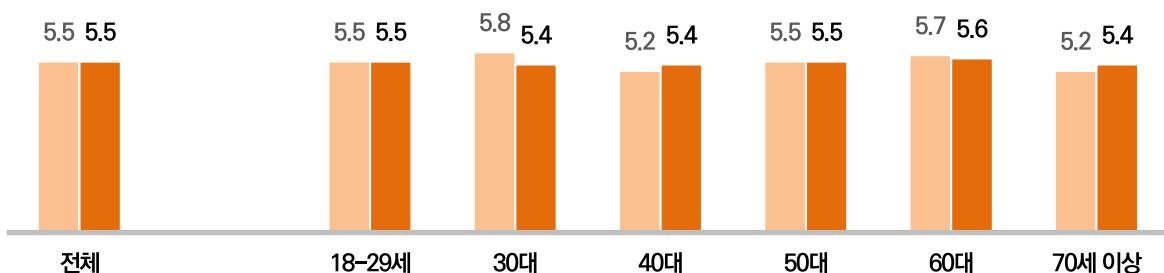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2025년 나 자신에 대한 만족도 평가

지난해와 비슷하게 고소득, 주관적 경제인식 중상층, 정규직 임금근로자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아

(단위 : 점)

2024년 2025년



질문: 을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스스로에게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매우 불만족스러운 한 해였다면 0점, 매우 만족스러운 한 해였다면 10점, 보통이라면 5점으로 답해 주세요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4. 12. 20 ~ 23. // 2025. 12. 19. ~ 22.

올 한해 인간관계, 여가·휴식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평가가, 개인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불만족한다는 평가가 우세

건강, 경제상황, 인간관계, 여가·휴식, 개인 성과·목표 달성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으로 2025년 한 해 본인의 삶을 평가해 보았다. 전체적으로는 보통 수준이었다는 평가가 40% 내외로 가장 많은 가운데 인간관계(만족한다 37%, 불만족한다 18%)와 여가·휴식(만족한다 36%, 불만족한다 24%)에 대해서는 만족스러운 한 해를 보냈다는 사람이 더 많다. 전반적인 건강(만족한다 28%, 불만족한다 28%)과 개인적 성과·목표 달성(만족한다 27%, 불만족한다 30%)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가 엇비슷하다. 반면 개인 경제 상황(만족한다 19%, 불만족한다 40%)에 대해서는 불만족한다는 평가가 만족한다는 평가의 2배 이상으로, 5개 분야 중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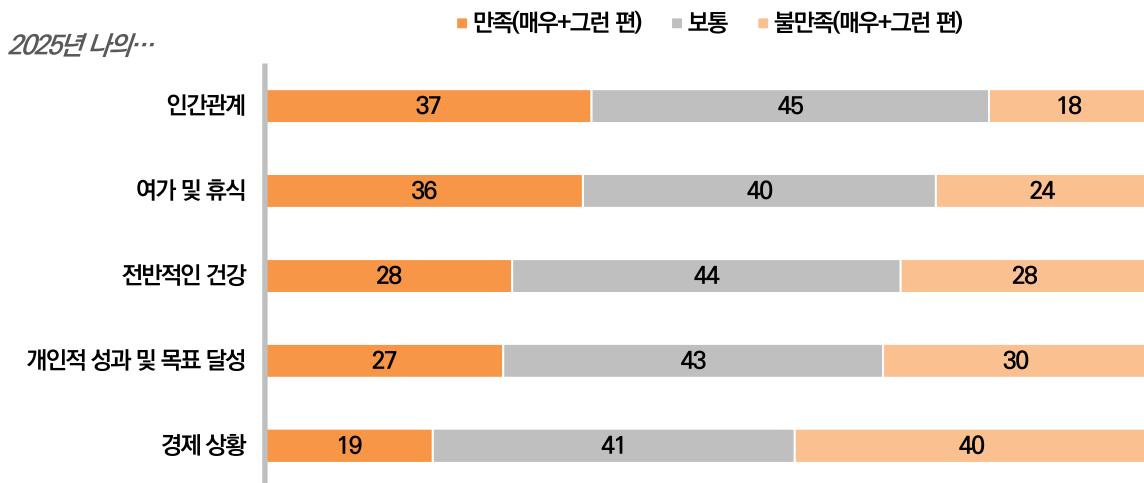
연령별로 보면, 18~29세는 절반 가량이 올 한 해 인간관계(만족한다 49%) 및 여가·휴식(50%)에 만족한다고 평가한 반면, 40대는 인간관계(27%)와 여가·휴식(26%) 모두 4명 중 1명 정도만 만족한다고 답해 대조를 이룬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각 분야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이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된다. 특히 경제 상황에 대해 가구소득 월 600만원 이상인 사람은 27%가 만족한다고 답한 반면, 300만원 미만인 사람은 10%만이 만족한다고 답했다. 주관적 계층인식별로도 중상층은 인간관계(48%), 여가·휴식(47%), 경제상황(31%) 등에서 하층(각각 31%, 29%, 11%)보다 만족도가 높다.

한편 올 한 해 스스로에게 불만족한다고 평가한 사람(0~4점) 중에서는 78%가 경제 상황에 불만족한다고 답해, 만족한다고 평가한 사람(23%)과 큰 차이를 보인다. 올 한 해에 대한 전반적인 자기 평가와 개인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올 한해 인간관계, 여가·휴식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평가가, 개인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불만족한다는 평가가 우세

(단위 : %)



질문: 좀 더 구체적으로, 귀하의 2025년을 돌아보면 다음 각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12. 19. ~ 22.

소득이 높을수록 올 한 해 인간관계, 건강, 경제상황 등에 만족한다는 응답도 높아

18~29세는 절반 가량이 올 한 해 인간관계 및 여가·휴식에 만족하는 반면, 40대는 4명 중 1명만 만족

(단위: %)

2025년 나의 삶 평가	사례수 (명)	인간관계			여가 및 휴식			전반적인 건강			개인적 성과 및 목표 달성			경제 상황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전체	(1,000)	37	45	18	36	40	24	28	44	28	27	43	30	19	41	40
성별																
남자	(495)	35	46	19	34	40	25	29	46	25	25	44	31	19	42	40
여자	(505)	40	44	16	37	40	24	28	41	31	29	42	29	19	41	40
연령																
18~29세	(150)	49	31	20	50	26	24	38	40	22	32	31	37	27	34	39
30대	(150)	32	46	23	38	39	23	32	40	28	30	38	32	20	33	47
40대	(171)	27	48	25	26	40	34	19	44	37	23	42	35	18	41	40
50대	(194)	36	43	21	31	45	24	30	43	28	24	48	28	17	40	43
60대	(178)	38	53	9	34	44	22	25	48	27	28	46	26	17	47	36
70세 이상	(157)	44	48	9	38	43	18	28	46	26	25	52	22	14	53	34
직장지위																
정규직 임금근로자	(340)	39	47	14	35	42	23	32	44	24	32	44	24	24	41	35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127)	35	44	20	28	40	32	23	42	34	22	45	34	13	39	48
자영업자	(119)	39	40	21	33	46	21	37	37	26	24	44	31	19	40	41
비경제활동	(413)	36	45	19	39	37	24	25	46	30	25	42	33	16	43	41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미만	(335)	32	46	22	29	46	26	21	45	34	19	45	36	10	42	48
3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394)	38	43	18	37	40	23	30	43	27	27	43	29	20	40	39
600만원 이상	(272)	43	46	11	42	32	25	35	43	22	35	41	23	27	43	30
주관적 계층인식																
중상층	(370)	48	43	9	47	35	18	40	42	18	42	38	19	31	46	22
하층	(603)	31	45	24	29	42	29	21	45	35	17	46	37	11	39	50
이념성향																
진보층	(244)	42	37	20	44	35	21	28	41	31	32	38	29	21	39	40
중도층	(390)	33	51	16	32	41	27	25	46	29	25	46	29	17	41	42
보수층	(332)	40	44	16	33	44	23	33	43	23	26	45	29	19	45	35
2025년 본인 평가																
불만족(0~4점)	(258)	18	45	37	23	34	43	13	35	52	2	24	74	4	17	78
보통(5점)	(262)	27	59	14	24	55	21	21	55	25	12	66	22	8	59	32
만족(6~10점)	(480)	54	37	9	48	35	17	41	42	17	48	42	10	32	45	23

질문: 좀 더 구체적으로, 귀하의 2025년을 돌아보면 올 때 다음 각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12. 19. ~ 22.

나의 2025년 2024년과 '큰 차이 없는 한 해였다' 46%, 좋지 않은 한 해였다 30% 30대 이하에서는 3명 중 1명이 '더 좋은 한 해였다'고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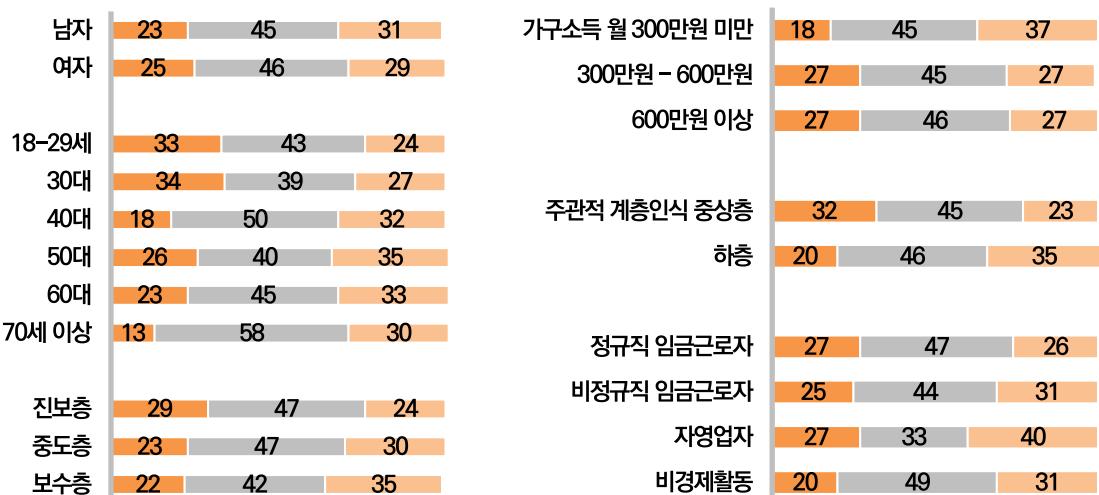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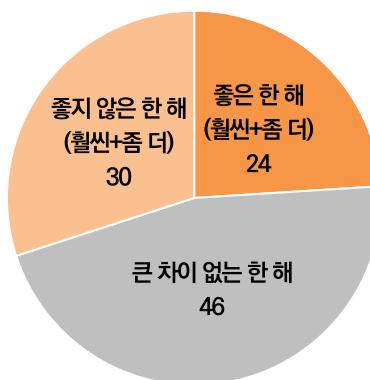
작년인 2024년과 비교할 때, 2025년은 '큰 차이 없는 한 해였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46%, '좋지 않은 한 해였다'는 사람이 30%, '좋은 한 해였다'는 사람이 24%이다. 2024년과 2025년이 비슷했다는 평가가 가장 많고, 10명 중 3명이 좋지 않은 한 해였다고 평가하나, 더 좋은 한 해였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긍정적인 평가가 가장 많은 세대는 30대(좋은 한 해였다 34%)와 18~29세(33%) 등 젊은 층이다. 반면 40대(18%)와 70세 이상(13%)에서는 좋은 한 해였다는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다. 70세 이상에서는 '2024년과 큰 차이 없는 2025년이었다'는 평가가 58%로 절반을 넘는다.

소득이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이 많으며(좋은 한 해였다 평가: 가구소득 월 300만원 미만 18%, 600만원 이상 27%), 자신을 중상층으로 평가하는 사람(좋은 한 해였다 32%)이 하층으로 평가하는 사람(20%)보다 2025년을 지난해보다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직장지위별로는 자영업자의 40%가 좋지 않은 한 해였다고 답해, 정규직 임금근로자(26%)보다 부정적인 평가가 높다.

나의 2025년 2024년과 '큰 차이 없는 한 해였다' 46%, 좋지 않은 한 해였다 30% 30대 이하에서는 3명 중 1명이 '더 좋은 한 해였다'고 평가

(단위 : %)



질문: 귀하의 2025년은 작년인 2024년과 비교해 보면 어떠신가요?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12. 19. ~ 22.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올해 초에는 42%가 지난해보다 더 좋은 한 해가 될 것이라 긍정적으로 전망했지만, 연말에는 24%만이 실제로 더 좋은 한 해였다고 평가

올해 초, 2025년 한 해 본인의 삶에 대한 전망을 물었을 때에는 '작년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예측한 사람이 42%,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본 사람은 37%, '작년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한 사람이 21%였다. 1년을 마무리하는 현재 시점에서 같은 방식으로 평가를 물은 결과, 긍정적인 평가는 24%, 부정적인 평가는 30%, 비슷했다는 평가는 46%이다. 연초 전망에서는 긍정 응답 비율(42%)이 부정 응답 비율(21%)의 2배였으나, 연말 평가에서는 긍정 응답 비율(24%)과 부정 응답 비율(30%)이 역전되었다. 연초에는 새해에 대한 낙관적 기대가 우세한 반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의 평가는 이보다는 비관적인 경향을 보인다.

연초 전망과 연말 평가의 응답 비율 차이를 상세히 살펴보면, 연령, 소득, 이념성향 등과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작년보다 좋아질 것/좋았다'는 긍정 응답 비율이 연초 전망보다 연말 평가에서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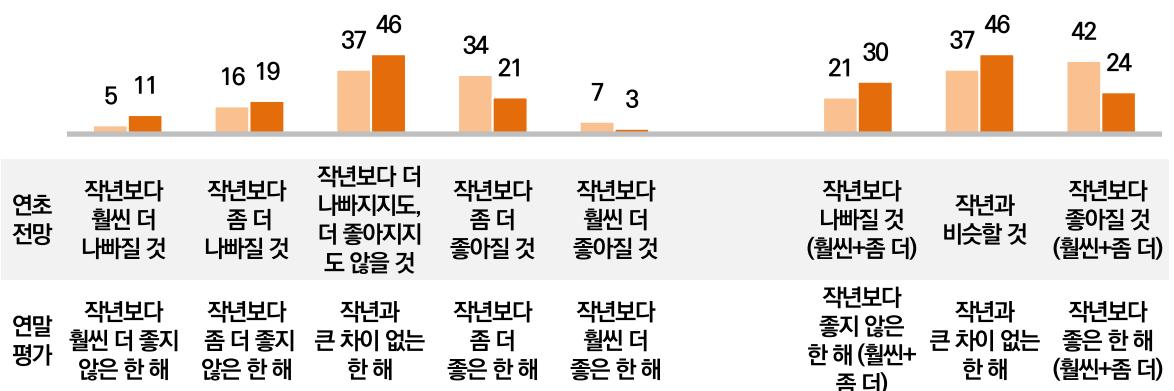
연령별로는 40대에서 격차가 가장 크다. 40대의 경우 연초에는 49%가 '작년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연말에는 18%만이 '작년보다 좋았다'고 평가해 31%포인트의 차이를 보였다. 18~29세도 연초 긍정 전망(57%)과 연말 긍정 평가(33%) 간 24%포인트 차이가 났다. 반면 60대(-9%포인트)와 70세 이상(-9%포인트)은 상대적으로 격차가 작다.

월평균 가구소득별로는 600만원 이상 고소득층에서 연초 긍정 전망(55%)과 연말 긍정 평가(27%) 간 격차가 28%포인트로 가장 크다. 연초에 새해를 낙관적으로 전망하는 비율이 높은 집단일수록 연말 평가에서의 긍정 응답 비율과의 격차도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된다.

올해 초에는 42%가 지난해보다 더 좋은 한 해가 될 것이라 긍정적으로 전망했지만, 연말에는 24%만이 실제로 더 좋은 한 해였다고 평가

(단위 : %)

■ 연초 전망 ■ 연말 평가



질문: 2025년 1월 – (한 해 전망) 2025년도 귀하의 삶은 작년과 비교할 때 어떨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2025년 12월 – (한 해 평가) 귀하의 2025년을 작년인 2024년과 비교해 보면 어떠신가요?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5. 1. 3. ~ 6. // 2025. 12. 19. ~ 22.

연령, 소득 등과 관계없이 연초 긍정 전망과 연말 긍정 평가 간 차이 있어
특히 40대 이하, 고소득층에서 큰 격차

(단위 : %)

나의 삶 전망과 평가 - 2025년	작년보다 나빠질 것(나빠졌다)			작년보다 나빠지지도, 좋아지지도 않을 것(비슷하다)			작년보다 좋아질 것(좋아졌다)		
	연초 전망	연말 평가	차이 (평가- 전망)	연초 전망	연말 평가	차이 (평가- 전망)	연초 전망	연말 평가	차이 (평가- 전망)
전체	21	30	+9	37	46	+9	42	24	-18
성별									
남자	23	31	+8	37	45	+8	40	23	-17
여자	19	29	+10	38	46	+8	44	25	-19
연령									
18~29세	9	24	+15	34	43	+9	57	33	-24
30대	15	27	+12	36	39	+3	49	34	-15
40대	15	32	+17	36	50	+14	49	18	-31
50대	28	35	+7	31	40	+9	41	26	-15
60대	26	33	+7	42	45	+3	32	23	-9
70세 이상	30	30	0	48	58	+10	22	13	-9
직장지위									
정규직 임금근로자	15	26	+11	37	47	+10	47	27	-20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25	31	+6	29	44	+15	46	25	-21
자영업자	26	40	+14	34	33	-1	40	27	-13
비경제활동	22	31	+9	42	49	+7	36	20	-16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미만	29	37	+8	39	45	+6	32	18	-14
3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19	27	+8	41	45	+4	40	27	-13
600만원 이상	14	27	+13	31	46	+15	55	27	-28
주관적 계층인식									
중상층	14	23	+9	37	45	+8	49	32	-17
하층	26	35	+9	37	46	+9	37	20	-17
이념성향									
진보층	24	24	0	32	47	+15	44	29	-15
중도층	21	30	+9	40	47	+7	39	23	-16
보수층	20	35	+15	38	42	+4	42	22	-20

질문: 2025년 1월: (한 해 전망) 2025년도 귀하의 삶은 작년과 비교할 때 어떨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2025년 12월: (한 해 평가) 귀하의 2025년을 작년인 2024년과 비교해 보면 어떠신가요?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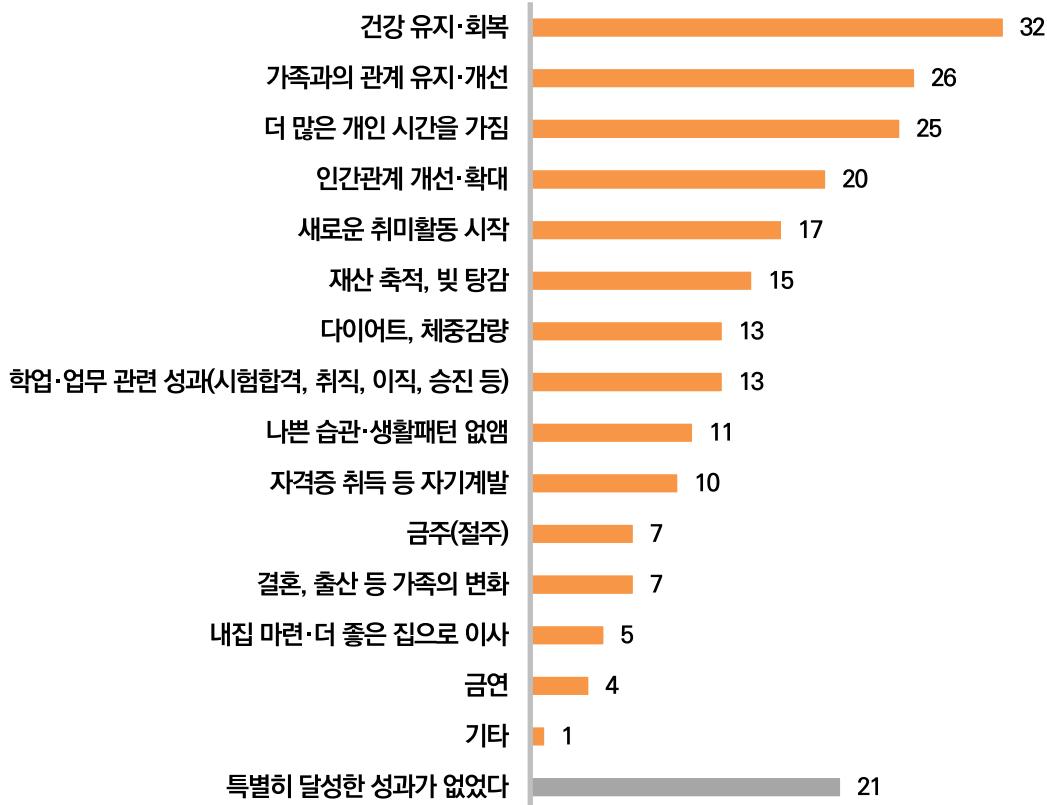
조사기간: 2025. 1. 3. ~ 6. // 2025. 12. 19. ~ 22.

2025년의 성과는 '건강 유지·회복', '가족 관계 유지·개선', '더 많은 개인시간 확보' 순 올해 특별히 달성한 성과가 없었다는 사람은 21%

올 한 해 달성한 개인적인 성과를 살펴보면 건강 유지·회복을 달성했다는 사람이 32%로 가장 많고, 이어서 가족과의 관계 유지·개선(26%), 더 많은 개인 시간을 가짐(25%)이 뒤를 잇는다. 5명 중 1명은 인간관계 개선·확대(20%)를 올 한 해 달성한 성과로 평가하며, 새로운 취미활동 시작(17%), 재산 축적·빚 탕감(15%), 다이어트·체중감량(13%), 학업·업무 관련 성과(시험합격, 취직, 이직, 승진 등 13%), 나쁜 습관·생활패턴 없앰(11%), 자격증 취득 등 자기계발(10%) 등을 성과로 꼽는 사람도 10명 중 1,2명 정도이다. 한편 올 한해 특별히 달성한 성과가 없다는 사람은 21%이다.

2025년의 성과는 '건강 유지·회복', '가족과의 관계 유지·개선', '더 많은 개인시간 확보' 순 올해 특별히 달성한 성과가 없었다는 사람은 21%

(단위 : %)



질문: 올 한 해 달성하신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비고: 복수응답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12. 19. ~ 22.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60세 이상은 '건강유지·회복'과 '가족과의 관계 유지·개선'이 올해 달성한 주요 성과 18~29세는 '학업·업무 관련 성과'와 '자격증 취득 등 자기계발'도 주요 성과로 꼽아

60대와 70세 이상에서는 건강 유지·회복을 올 한 해 성과로 꼽는 사람이 각각 39%, 48%로 다른 연령대 대비 높다. 또한 가족과의 관계 유지·개선을 달성했다는 사람 또한 각각 30%, 36%로 다른 연령대 대비 높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건강 관리와 가족관계에 더 큰 의미를 두는 모습이다.

한편 18~29세에서는 학업·업무 관련 성과(28%)와 자격증 취득 등 자기계발(23%)을 올 한 해 달성한 성과로 언급한 비율이 다른 연령대 대비 높다. 30대에서도 학업·업무 관련 성과를 꼽는 비율이 26%로 높은 편이다. 반면 18~29세에서 가족과의 관계 유지·개선을 성과로 꼽은 비율은 15%로, 전체 평균(26%)보다 낮다.

올 한 해 스스로에게 불만족한다고 답한 사람(0~4점) 중에서는 38%가 올 한 해 특별히 달성한 성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이는 스스로 만족한다고 평가한 사람(6~10점) 중 특별한 성과가 없었다고 답한 응답(7%)보다 31%포인트 높다.

60세 이상은 '건강유지·회복'과 '가족과의 관계 유지·개선'이 올해 달성한 주요 성과 18~29세는 '학업·업무 관련 성과'와 '자격증 취득 등 자기계발'도 주요 성과로 꼽아

(단위 : %)

사례수 (명)	건강 유지· 회복	특별 히 달성 한 성 과 가 없 었 다															
		가족 과의 관계 유지· 개선	더 많은 개인 시간 을 가짐	인간 관계 개선· 확대	새로 운 취미 활동	재산 축적, 빚 탕감	다이 어트, 체중 감량	학업· 업무 관련 성과	나쁜 습관· 생활 패턴	자격 증 취득 등 자기 계발	결혼· 출산 등 가족 의 변화	내집 마련· 더 좋은 집 으로 이사	금연	기타			
전체	(1,000)	32	26	25	20	17	15	13	13	11	10	7	7	5	4	1	21
성별																	
남자	(495)	29	26	23	20	14	18	12	12	11	8	9	6	4	6	0	22
여자	(505)	34	26	27	19	19	13	14	14	11	11	6	8	6	2	1	20
연령																	
18~29세	(150)	26	15	31	29	20	14	16	28	12	23	5	4	1	2	1	17
30대	(150)	23	21	26	15	15	21	20	26	14	9	12	15	9	1	1	18
40대	(171)	26	29	20	14	13	17	11	10	4	7	5	5	9	6	1	25
50대	(194)	28	25	20	17	13	21	13	11	10	8	8	6	5	5	2	20
60대	(178)	39	30	26	18	22	10	9	3	16	5	10	8	2	5	0	22
70세 이상	(157)	48	36	29	25	18	9	11	3	9	7	5	3	4	3	1	24
2025년 본인 평가																	
불만족(0~4점)	(258)	20	17	24	13	16	8	10	6	11	7	7	3	4	4	1	38
보통(5점)	(262)	33	24	20	14	14	12	12	8	8	8	8	5	5	4	0	29
만족(6~10점)	(480)	38	32	29	26	19	21	15	19	12	12	7	9	6	3	1	7

질문: 올 한 해 달성하신 성과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비고: 복수응답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12. 19. ~ 22.

2 2025년 우리나라 한 해 평가

2025년 우리나라에 만족도 평가, 10점 만점에 5.1점으로 2021년 평가 이후 최고 수준 성별, 세대, 소득 등과 관계없이 모두 지난해 대비 비교적 큰 폭 상승

개인의 삶 평가와 같은 방식으로, 2025년 한 해를 돌아보기 때 우리나라에는 몇 점을 줄 수 있는지 물었다. 0에서 10점으로 평가했고, 10점에 가까울수록 좋다는 의미이다. 올 한 해 우리나라에 대해 '좋았다(6~10점)'고 평가하는 사람은 43%, '좋지 않았다(0~4점)'고 평가하는 사람은 34%, '보통(5점)'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은 26%이다. 10명 중 4명 이상이 우리나라의 2025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에 5.1점이다.

우리나라에 대한 만족도 평가 점수는 2021년 4.6점, 2022년 4.2점, 2023년 4.0점, 2024년 3.3점으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2025년에는 5.1점으로 2021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해 비상계엄 직후 조사(3.3점) 대비 1.8점 상승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가 크게 회복된 것이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과 세대, 계층, 이념성향 등과 관계없이 2025년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가 2024년 대비 모두 상승했다. 40대(5.6점)와 50대(5.6점)의 평가가 다른 세대 대비 높고,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5.5점), 주관적 계층인식 중상층(5.5점)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보였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의 평가가 2.6점에서 6.3점으로 3.7점 상승해 가장 큰 폭의 변화를 보였다. 중도층도 3.3점에서 5.1점으로 1.8점 상승했다. 반면 보수층은 4.2점에서 4.4점으로 0.2점 상승에 그쳐, 이념성향에 따른 평가 변화의 폭이 크게 다르게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보수층(4.2점)의 평가가 진보층(2.6점)보다 1.6점 높았으나, 올해는 진보층(6.3점)이 보수층(4.4점)보다 1.9점 높아 순위가 역전되었다.

2025년 우리나라에 만족도 평가, 10점 만점에 5.1점으로 2021년 평가 이후 최고 수준 지난해 비상계엄 직후 조사 대비 1.8점 상승

2025년 조사결과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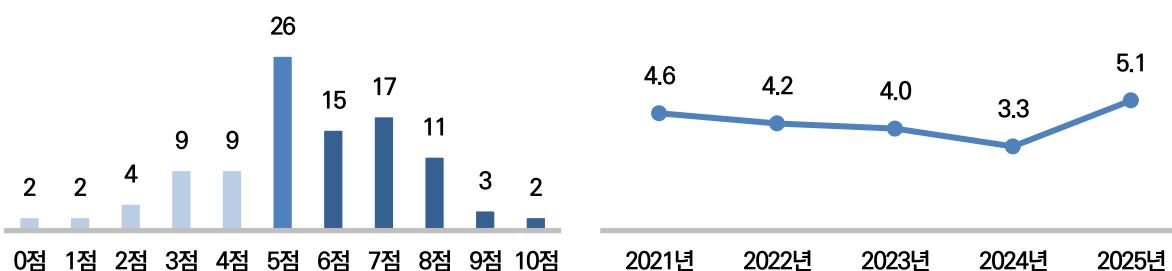
좋지 않음: 34%

평균: 5.1점

좋음: 43%

우리나라에 대한 만족도 평가 점수 추이

(단위 : 점)



질문: 우리나라에 대해 평가해 보겠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기 때, 대한민국에는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매우 좋지 않았다면 0점, 매우 좋았다면 10점, 보통이라면 5점으로 답해 주세요.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12. 19. ~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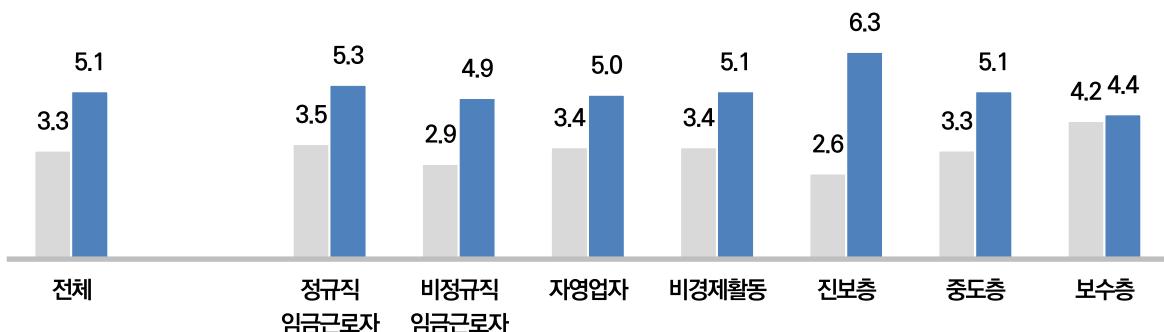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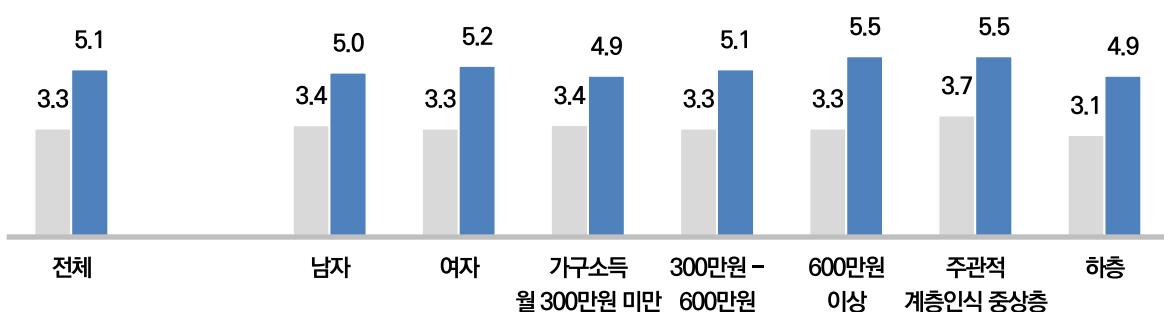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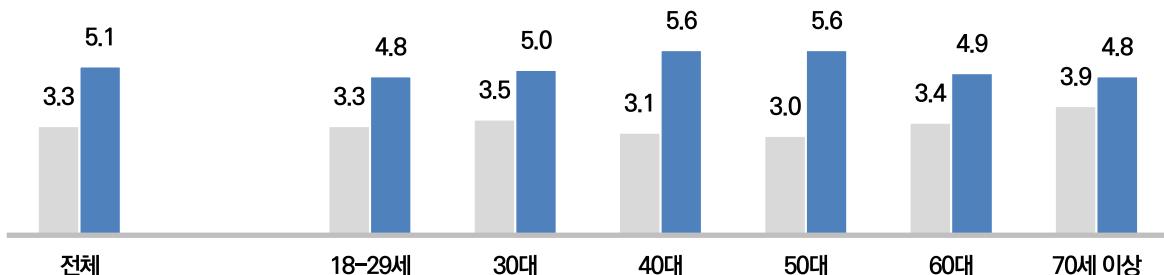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2025년 우리나라에 대한 만족도 평가

성별, 세대, 소득 등과 관계없이 모두 지난해 대비 비교적 큰 폭 상승

(단위 : 점)

■ 2024년 ■ 2025년



질문: 올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나라에는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전반적으로 매우 불만족스러운 한 해였다면 0점, 매우 만족스러운 한 해였다면 10점, 보통이라면 5점으로 답해 주세요.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4. 12. 20 ~ 23. // 2025. 12. 19. ~ 22.

올 한 해 우리나라의 외교, 사회 안전·치안에 대해서는 긍부정 평가가 혼재 정치 및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불만족한다는 의견 절반 넘어

외교, 사회 안전과 치안, 안보, 정치, 경제 등에서 2025년 한 해 대한민국을 평가해 보면, 분야별로 평가가 엇갈린다. 외교 관계(만족한다 34%, 불만족한다 31%)와 사회 안전과 치안(만족한다 29%, 불만족한다 30%)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 평가가 비슷한 수준이다. 안보 상황(만족한다 24%, 불만족한다 32%)에 대해서는 불만족한다는 평가가 다소 높지만, 보통이라는 평가가 43%로 가장 많다.

반면 정치 상황(만족한다 20%, 불만족한다 53%)과 경제 상황(만족한다 12%, 불만족한다 51%)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이 불만족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만족한다는 평가가 12%에 그쳐, 5개 분야 중 만족도가 가장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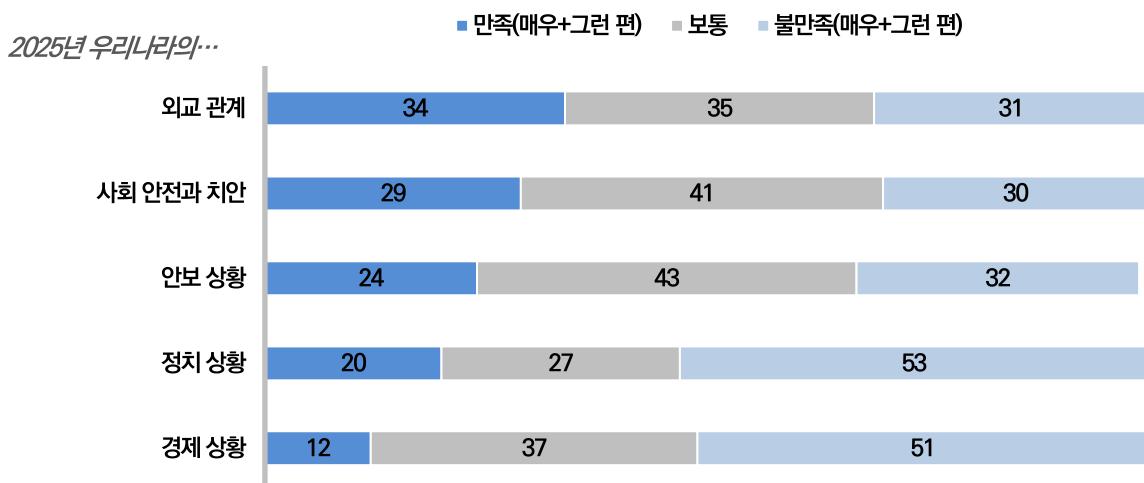
이념성향별로 2025년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진보층과 보수층 간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진보층은 외교 관계(만족한다 60%, 불만족한다 12%), 안보 상황(만족한다 46%, 불만족한다 14%), 사회 안전과 치안(만족한다 45%, 불만족한다 19%), 정치 상황(만족한다 40%, 불만족한다 34%) 등 경제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만족한다는 의견이 불만족한다는 의견보다 많다.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진보층도 만족한다는 의견(21%)보다는 불만족한다는 의견(34%)이 높다.

반면 보수층은 모든 항목에서 불만족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특히 정치 상황(불만족한다 69%)과 경제 상황(불만족한다 63%)에 대해서는 60% 이상이 불만족한다고 평가했다. 안보 상황(불만족한다 49%)과 외교 관계(불만족한다 49%)에 대해서도 절반 가까이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올 한 해 우리나라에 대해 불만족한다고 평가한 사람(0~4점) 중에서는 정치 상황(90%)과 경제 상황(88%)에 불만족한다는 응답이 특히 높다.

올 한 해 우리나라의 외교, 사회 안전·치안에 대해서는 긍부정 평가가 혼재 정치 및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불만족한다는 의견 절반 넘어

(단위 : %)



질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2025년을 돌아보면 다음 각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12. 19. ~ 22.

**진보층은 경제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올 한해 만족한다는 의견이 다수
보수층은 모든 항목에서 불만족 의견 높아… 특히 정치와 경제는 60% 이상이 불만족**

(단위 : %)

2025년 대한민국 평가	사례수 (명)	외교 관계			사회 안전과 치안			안보 상황			정치 상황			경제 상황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전체	(1,000)	34	35	31	29	41	30	24	43	32	20	27	53	12	37	51
성별																
남자	(495)	31	36	33	29	42	28	23	42	34	20	23	57	11	37	52
여자	(505)	37	34	30	29	40	31	26	44	31	20	30	50	13	36	51
연령																
18~29세	(150)	29	40	31	22	38	40	18	47	35	21	31	49	13	32	55
30대	(150)	29	39	32	27	37	36	20	43	38	20	31	49	11	34	55
40대	(171)	38	39	23	28	45	27	27	43	30	20	36	44	15	39	47
50대	(194)	43	31	26	42	40	18	34	45	20	24	27	49	13	45	42
60대	(178)	34	28	38	28	45	26	22	44	33	17	22	61	11	35	54
70세 이상	(157)	27	34	39	23	40	36	22	36	42	17	15	68	9	33	58
직장지위																
정규직 임금근로자	(340)	36	34	30	32	42	26	28	42	31	24	27	50	14	37	49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127)	35	34	31	28	39	32	21	46	33	22	28	50	14	35	51
자영업자	(119)	31	39	30	24	44	32	24	46	30	15	26	58	10	40	50
비경제활동	(413)	33	35	33	28	40	32	23	43	34	18	26	56	11	36	53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미만	(335)	30	38	33	23	40	37	23	43	34	15	28	57	11	38	51
3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394)	34	35	31	30	41	29	23	44	34	21	28	52	11	35	54
600만원 이상	(272)	39	32	30	35	42	22	28	43	29	25	24	51	15	38	47
주관적 계층인식																
중상층	(370)	36	36	27	33	43	23	28	44	28	24	26	50	15	40	45
하층	(603)	32	33	34	27	39	34	22	42	36	18	26	56	11	34	56
이념성향																
진보층	(244)	60	27	12	45	36	19	46	40	14	40	26	34	21	45	34
중도층	(390)	28	44	28	26	47	27	19	52	29	16	32	52	9	39	52
보수층	(332)	22	29	49	22	37	41	16	34	49	11	20	69	10	27	63
2025년 우리나라 평가																
불만족(0~4점)	(344)	5	29	66	8	32	60	3	27	70	2	8	90	1	11	88
보통(5점)	(228)	21	58	22	21	60	19	14	65	21	9	47	45	4	53	43
만족(6~10점)	(428)	64	27	9	50	38	11	47	45	8	41	31	28	25	49	26

질문: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2025년을 돌아보기 때 다음 각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12. 19. ~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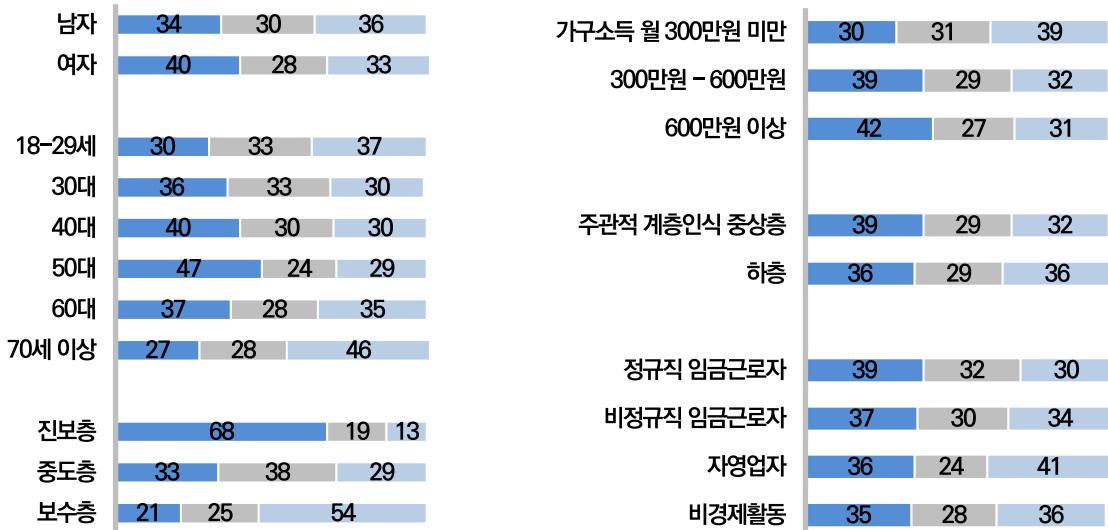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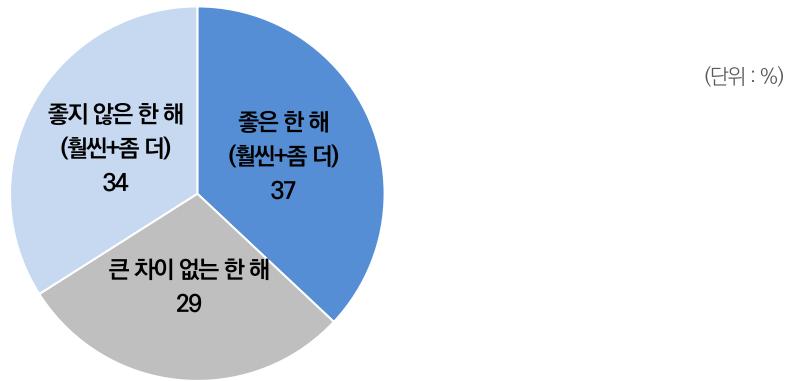
우리나라의 2025년, 지난해보다 좋은 한 해 37%, 좋지 않은 한 해 34%, 비슷한 해 29% 진보층은 68%가 좋은 한 해였다고 평가, 보수층은 54%가 좋지 않은 한 해였다고 평가

작년인 2024년과 비교할 때, 2025년의 대한민국은 '좋은 한 해였다'는 평가가 37%, '좋지 않은 한 해였다'는 평가가 34%, '큰 차이 없는 한 해였다'는 평가가 29%로,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비슷한 수준이다.

다시 한 번, 이념성향별로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 진보층의 68%가 2024년보다 좋은 한 해였다고 평가한 반면, 보수층의 54%는 좋지 않은 한 해였다고 평가한다. 중도층은 좋은 한 해(33%), 큰 차이 없음(38%), 좋지 않은 한 해(29%)로 비교적 고른 분포를 보였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으며(좋은 한 해였다 평가: 가구소득 월 300만원 미만 30%, 600만원 이상 42%), 자영업자의 41%는 좋지 않은 한 해였다고 평가해 다른 직장지위 대비 부정적 평가가 높다.

연령별로는 50대에서 좋은 한 해였다는 평가가 47%로 가장 높다. 반면 70세 이상에서는 좋지 않은 한 해였다는 평가가 46%로 다른 연령대 대비 높고, 18~29세도 37%가 좋지 않은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우리나라의 2025년 2024년보다 좋은 한 해 37%, 좋지 않은 한 해 34%, 비슷한 한 해 29%
진보층은 68%가 좋은 한 해였다고 평가한 반면, 보수층은 54%가 좋지 않은 한 해였다고 평가



질문: 우리나라의 2025년은 작년인 2024년과 비교해 보면 어떠신가요?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12. 19. ~ 22.

올해 초에는 59%가 지난해보다 더 좋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라 부정적으로 전망했지만, 연말에는 34%만이 실제로 더 나쁜 한 해였다고 평가

올해 초, 2025년 한 해 우리나라에 대한 전망을 물었을 때에는 '작년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예측한 사람이 59%, '작년과 비슷할 것'이라고 본 사람은 21%, '작년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한 사람이 19%였다. 1년을 마무리하는 현재 시점에서 같은 방식으로 평가를 물은 결과, 부정적인 평가는 34%, 긍정적인 평가는 37%, 비슷했다는 평가는 29%이다. 연초 전망에서는 부정 응답 비율(59%)이 긍정 응답 비율(19%)의 3배에 달했으나, 연말 평가에서는 긍정 응답 비율(37%)과 부정 응답 비율(34%)이 엇비슷하다. 연초에는 우리나라의 한 해에 대해 비관적 전망이 우세했던 반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의 평가는 이보다 긍정적인 경향을 보인다.

연초 전망과 연말 평가의 응답 비율 차이를 세부 집단별로 살펴보면, 연령, 소득, 이념성향 등과 관계없이 모든 집단에서 '작년보다 나빠질 것/좋지 않았다'는 부정 응답 비율이 연초 전망보다 연말 평가에서 낮게 나타났다. 반대로 '작년보다 좋아질 것/좋았다'는 긍정 응답 비율은 모든 집단에서 연말 평가가 연초 전망보다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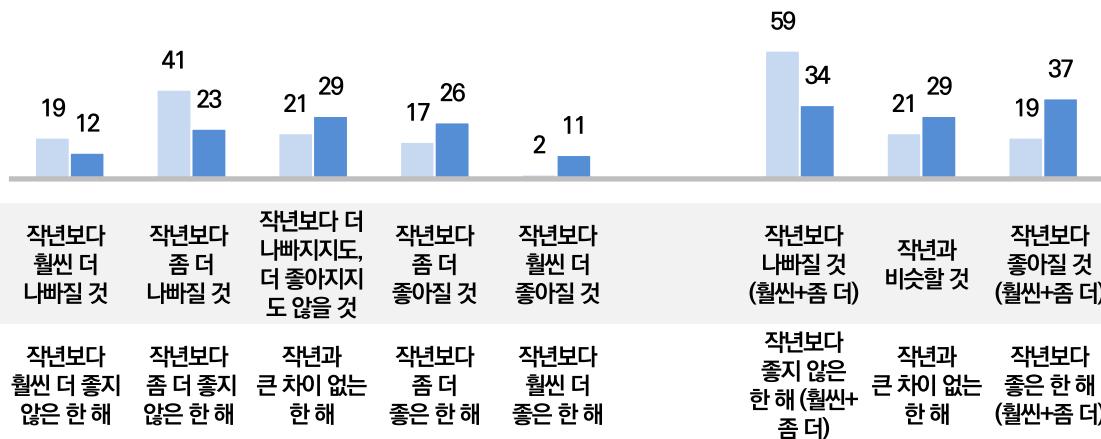
연령별로는 50대와 60대에서 부정 응답 비율의 격차가 각각 31포인트로 가장 커다. 50대의 경우 연초에는 60%가 '작년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연말에는 29%만이 '작년보다 좋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18~29세에서는 연초 부정 전망(52%)과 연말 부정 평가(37%) 간 격차가 15포인트로 상대적으로 작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격차가 가장 두드러진다. 진보층의 부정 전망(56%)과 부정 평가(13%) 간 격차는 43포인트, 긍정 전망(29%)과 긍정 평가(68%) 간 격차는 39포인트에 달했다. 반면 보수층은 부정 전망(62%)과 부정 평가(54%) 간 격차가 8포인트에 그쳐, 연초 전망과 연말 평가 간 응답 비율 차이가 가장 작다.

올해 초에는 59%가 지난해보다 더 좋지 않은 한 해가 될 것이라 부정적으로 전망했지만, 연말에는 34%만이 실제로 더 나쁜 한 해였다고 평가

(단위 : %)

■ 연초 전망 ■ 연말 평가



질문: 2025년 1월 – (한 해 전망) 2025년도의 대한민국은 작년과 비교할 때 어떨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2025년 12월 – (한 해 평가) 우리나라의 2025년을 작년인 2024년과 비교해 보면 어떠신가요?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5. 1. 3. ~ 6. // 2025. 12. 19. ~ 22.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연령, 소득 등과 관계없이 연초 부정 전망과 연말 부정 평가 간 차이 있어
특히 5·60대와 진보층에서 큰 격차**

(단위 : %)

우리나라 전망과 평가 - 2025년	작년보다 나빠질 것(나빠졌다)			작년보다 나빠지지도, 좋아지지도 않을 것(비슷하다)			작년보다 좋아질 것(좋아졌다)		
	연초 전망	연말 평가	차이 (평가- 전망)	연초 전망	연말 평가	차이 (평가- 전망)	연초 전망	연말 평가	차이 (평가- 전망)
전체	59	34	-25	21	29	+8	19	37	+18
성별									
남자	59	36	-23	22	30	+8	20	34	+14
여자	60	33	-27	21	28	+7	19	40	+21
연령									
18~29세	52	37	-15	33	33	0	16	30	+14
30대	57	30	-27	22	33	+11	21	36	+15
40대	55	30	-25	21	30	+9	24	40	+16
50대	60	29	-31	17	24	+7	23	47	+24
60대	66	35	-31	19	28	+9	16	37	+21
70세 이상	68	46	-22	17	28	+11	15	27	+12
직장지위									
정규직 임금근로자	54	30	-24	24	32	+8	22	39	+17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63	34	-29	21	30	+9	16	37	+21
자영업자	66	41	-25	19	24	+5	16	36	+20
비경제활동	61	36	-25	20	28	+8	19	35	+16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미만	58	39	-19	20	31	+11	21	30	+9
3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62	32	-30	21	29	+8	16	39	+23
600만원 이상	57	31	-26	22	27	+5	21	42	+21
주관적 계층인식									
중상층	53	32	-21	26	29	+3	21	39	+18
하층	64	36	-28	18	29	+11	18	36	+18
이념성향									
진보층	56	13	-43	15	19	+4	29	68	+39
중도층	60	29	-31	26	38	+12	13	33	+20
보수층	62	54	-8	20	25	+5	18	21	+3

질문: 2025년 1월(한 해 전망) 2025년도의 대한민국은 작년과 비교할 때 어떨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2025년 12월(한 해 평가) 우리나라의 2025년을 작년인 2024년과 비교해 보면 어떠신가요?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5. 1. 3. ~ 6. // 2025. 12. 19. ~ 22.

3 연말 계획

10명 중 7명, 친구·지인·동료 및 가족·친척과 연말 송년회 했거나 예정하고 있어 예년과 비슷한 수준

4명 중 3명(75%)은 친구나 지인, 회사동료 등과 연말 송년회를 가졌거나, 가질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이다. 가족 및 친척과의 연말 송년회를 가졌거나, 계획한다는 사람은 73%로 지난해(69%)보다 4%포인트 늘었다. 연말 해님이를 봤거나, 보러 간다는 사람도 43%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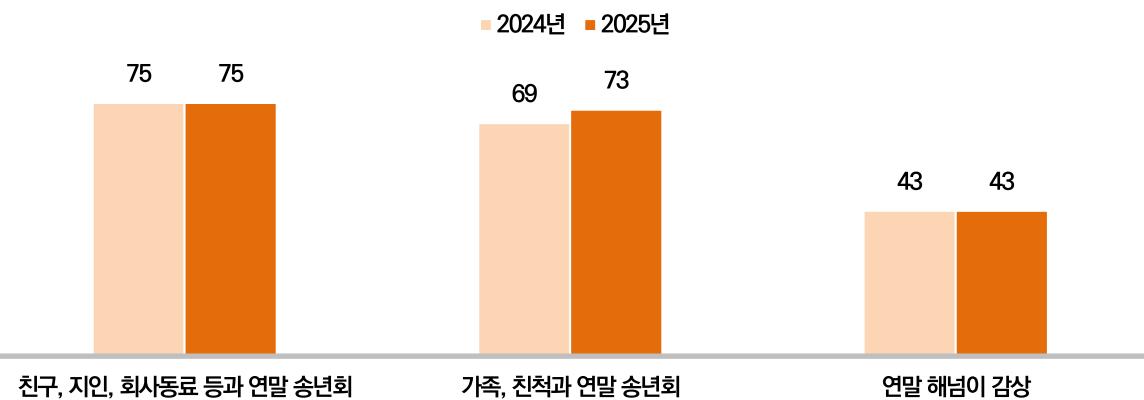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그리고 스스로를 중상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족 및 주변 사람과의 송년회를 계획하고 있다. 친구·지인·동료와의 송년회는 가구소득 월 600만원 이상(82%)이 300만원 미만(66%)보다 높고, 중상층(83%)이 하층(70%)보다 높다. 가족·친척과의 송년회도 가구소득 월 600만원 이상(82%)이 300만원 미만(66%)보다, 중상층(81%)이 하층(68%)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직장지위별로는 정규직 임금근로자의 85%가 친구, 지인, 회사동료 등과 연말 송년회를 가졌거나 가질 예정이라고 답해, 비경제활동(66%)보다 높다. 가족, 친척과의 연말 송년회도 정규직 임금근로자(79%)가 비경제활동(66%)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연말 해님이 감상은 중상층(53%)이 하층(37%)보다 높고, 가구소득 월 600만원 이상(51%)이 300만원 미만(39%)보다 높다.

10명 중 7명, 친구·지인·동료 및 가족·친척과 연말 송년회 했거나 예정하고 있어 예년과 비슷한 수준

(단위 : %)



질문: 2025년 연말에 다음 각각을 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 친구, 지인, 회사동료 등과 연말 송년회(모임, 회식, 외식, 파티 등)
 - 가족, 친척과 연말 송년회(모임, 외식, 파티 등)
 - 해님이 감상

비고: '경험 있거나 연 내 예정 있음' 응답 제시함.

응답자 수: 각 조사별 1,000명

조사기간: 2024. 12. 20 ~ 23. // 2025. 12. 19 ~ 22.

정규직 임금근로자, 가구소득 월 600만원 이상, 스스로를 ‘중상층’이라 평가하는 사람 등이
연말 송년회를 했거나 계획한다는 응답 상대적으로 높아

(단위 : %)

2025년 연말계획	시례수 (명)	친구, 지인, 회사동료 등과 연말 송년회(모임, 회식, 외식, 파티 등)			가족, 친척과 연말 송년회(모임, 외식, 파티 등)			연말 해넘이 감상		
		경험 있음	연내 예정	경험 있음 + 연내 예정	경험 있음	연내 예정	경험 있음 + 연내 예정	경험 있음	연내 예정	경험 있음 + 연내 예정
전체	(1,000)	49	26	75	42	31	73	22	21	43
성별										
남자	(495)	48	28	76	40	30	70	19	23	42
여자	(505)	51	23	74	44	31	76	25	20	45
연령										
18~29세	(150)	43	30	73	37	33	70	17	25	42
30대	(150)	51	26	76	40	38	77	23	24	47
40대	(171)	51	23	74	43	26	69	24	19	43
50대	(194)	53	25	78	43	30	73	26	20	45
60대	(178)	45	26	70	44	27	71	23	19	42
70세 이상	(157)	54	24	78	46	31	77	18	23	40
직장지위										
정규직 임금근로자	(340)	59	26	85	45	35	79	25	24	49
비정규직 임금근로자	(127)	43	32	75	45	29	74	20	18	38
자영업자	(119)	54	24	78	45	32	77	24	25	49
비경제활동	(413)	42	24	66	38	28	66	19	19	38
월평균 가구소득										
300만원미만	(335)	36	29	66	34	32	66	18	20	39
3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394)	52	25	78	43	29	72	21	20	42
600만원 이상	(272)	61	22	82	51	31	82	27	24	51
주관적 계층인식										
중상층	(370)	60	23	83	49	32	81	29	23	53
하층	(603)	43	27	70	38	30	68	17	20	37

질문: 2025년 연말에 다음 각각을 한 경험이 있거나, 예정되어 있습니까?

- 친구, 지인, 회사동료 등과 연말 송년회(모임, 회식, 외식, 파티 등)
- 가족, 친척과 연말 송년회(모임, 외식, 파티 등)
- 해넘이 감상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12. 19 ~ 22.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ul style="list-style-type: none">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5년 11월 기준 약 97만여 명)
표집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1,000명
표본오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
조사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5년 9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조사요청 28,052명, 조사참여 1,547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3.6%, 참여대비 64.6%)
조사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2025년 12월 19일 ~ 12월 22일
조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 | Research

